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팀라 에이치 라티에타 사진 촬영, 유타 버날
성전의 침례반
삽입 : 제드 에이 클리크 사진 촬영,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윌리엄 출드먼 사진 촬영,
사모아 아피아 성전



친구들란 표지

사진 삽화 : 크레이그 디아몬드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25 방문 교육 메시지: 봉사와 선행을 기뻐함
26 빛나간 내 자녀를 사랑함 이름을 밝히지 않음
30 성전 사업의 교리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38 필멸의 삶을 시작케 한 선택 제스 엘 크리스틴슨 장로
42 말일성도의 소리 : "교회의 힘"
 주님의 예언자 마리아 소냐 피 안티케나
 "그냥 형제라고 불러 주세요." 호세 바타예르 살라
 사랑의 선물 클라우디아 웨이트 리차스
48 2002년 8월호 리아호나 활용하기

청소년란

- 8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의 힘 샤나 가즈나비
12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20 리아호나 고전 : 장로님,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22 삶이 고될지라도 존 비 딕슨 장로
47 질의 응답 :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 성전의 영향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4 신약 성서 이야기 : 바리새인과 세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8 어린 친구들을 위해 : 나의 기억의 책 로리 스티븐스
10 심심풀이 : 홍해 활동 사진
12 함께 나누는 시간 : "자녀들의 마음" 비키 애프 마쭈모리
14 목마름 루스앤 지 브리지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심사자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데어비드 비
하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엠 넬슨, 멜린 에이치 옥스, 엠
리얼 빌리드, 조셉 비 워스만, 리처드 자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뉴엔스원더

고문: 제이 캔트 줄리, 더블류 폴프 커, 스티븐 애이 웨스트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널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앤ьян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탠드

관리 편집인: 마틴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채니퍼 엘 그린우드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 보조: 리자 앤 쟈슨

편집 보조: 수잔 브렛

출판 보조: 클레트 네베거 오온

디자인 스탠드

집지 그래픽부장: 엘 기와사기

미술 책임자: 스크로 벤 캠벨

선임 디자이너: 새리 콕

디자이너: 토마스 에스 치일드, 랜들 제이 피스톤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이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스 커비, 켈리 프랫,

로널드 에프 스미스, 캐리 애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외너

디자일 교정 인쇄: 제프 마틴

인쇄 및 배포:

인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포 부장(구독): 크리스 티 크리스舔스

통 권: 제437호, 제39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2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운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편집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힐리게이트어, 힙기리어, 아이슬란드어, 일로카노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리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미다기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풀란드어, 포드토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시모어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그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ugust 2002 No.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감

2000년 6월호 리아호나(영어 판)는 계속해서
제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출판물입니다. 특
히 강력한 느낌을 주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기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복음의 힘과 위안이
필요할 때마다 이 출판물을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홀런드 장로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할 때면, 우리
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포 아키바,

나이지리아 라고스 스테이크,

오크코마이코 지부

성전 축복을 위해 준비함

저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연차 대회는 집에
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리아
호나(영어 판)의 도움으로, 총관리 역원들의 모든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연차 대회의 모든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2001년 7월호에 실려 있는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라는 러셀 엠 넬슨 장로의 말씀
은 특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에 가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앤다우
먼트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
든 성전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킨다면, 하늘에 계
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존 마크 애이 카브레라,

필리핀 이바 지방부,

리오존 지부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자 노력함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영감과 힘의 근원입니다. 이
나침반을 우리 언어로 읽을 수 있게 해 주신 모
든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1년 6월호
에 나오는 “계속하여 선행하려는 마음”이라는 스
펜서 제이 콘디 장로의 기사는 제게 계속해서 전
진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호세 루이스 구요 프리에토,

베네수엘라 구아야나 스테이크,

우파타 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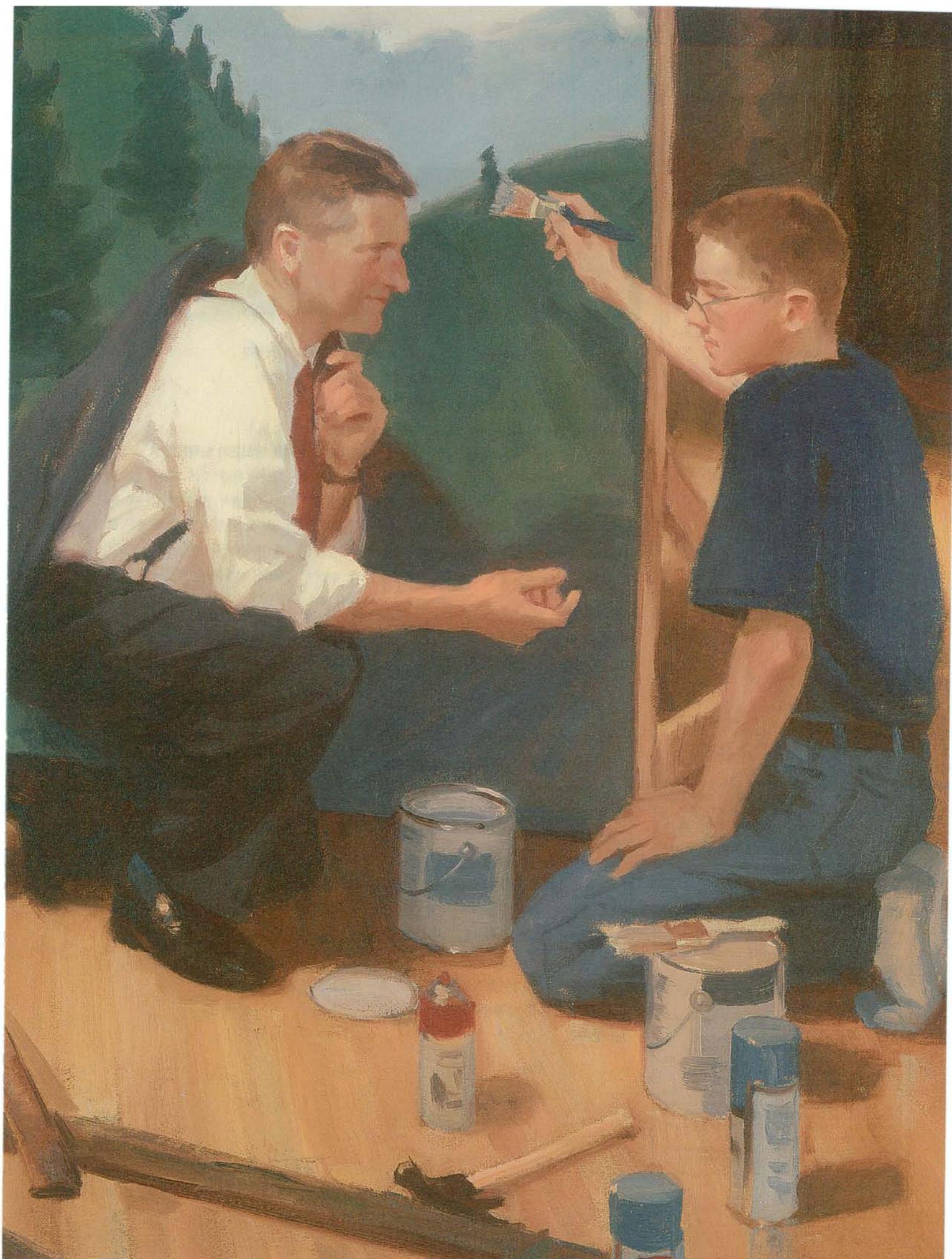
힐클리 대관장의 메시지에 대한 감사

2001년 7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훌륭한 연차 대회 말씀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
니다. 참으로 영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회가 참
되다는 것을 영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욱
훌륭한 회원이 되라고 권고하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의 메시지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틴 발리엔테 니에베스,

페루 탈라라 지방부,

탈라라 지부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몇 년 전에 사무실로 온 편지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줄이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표현의 일부도 조금 바꿨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께,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대관장님을 봤었을 때 편지를 드려 제게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여섯, 일곱 살 무렵에 저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염려 하시던 감독님이 찾아오셔서 로드 쇼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배경을 만드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절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 후에, 감독님이 다시 찾아와 제게 그 배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으나 저는 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 보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다며 모두 거절했다고 제게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승낙하고 배경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 일을 마쳤을 때 저는 ‘원하시던 배경이에요,’ 하며 제 일은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은 로드 쇼가 와드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옮기고 맞추고 조심스럽게 운반하려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고, 결국 저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감독님은 한동안 저를 꽤 바쁘게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감독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고, 새로운 감독님이 부임 받았는데, 그는 저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미스 감독님이 제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렌슨 감독님도 제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하셨고, 마침내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감독님과 저는 부모님께 제 결심에 대해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부모님은 감독님에게 선교사 경비를 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감독님에게 만일 제가 진심으로 선교 사업을 하려 나가고 싶어한다면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스스로 선교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력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디로 갈 때면 다른 사람이 데려다주어야 했습니다.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여러 안과 의사들에게 데리고 가 보았지만 검사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0.0025(거의 실명 수준임: 편집자 주)이었고, 왼쪽 눈의 시력은 0.4이었으며, 난시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하게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백화점에 있는 간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감독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모은 돈은 1천 불이었으며, 감독님은 아버지에게 나머지 돈을 장로 정원회에서 보조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대로 앉아 계시더니 만일 누군가 아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면 자신이 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경험하게 된 선교 사업을 좋아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여러 사람에게 침례를 주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귀환한 후에 저는 다시 그 간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당시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그 길을 걸어오는 한 젊은 여성을 보곤 했는데, 그녀도 그 부근 어디에선가 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전에 어디에선가 그녀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선교사 동반자 한 사람이 귀환했으며, 얼마 후 우리는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시력 때문에 운전은 그가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전화를 걸어 더블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데이트 상대를 찾느라 다급하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파티에 갔는데 그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마릴린 존스 차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 역시 일본에 있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잠시 그녀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녀가 지난 수 개월 동안 길거리에서 만났지만 알아보지는 못했던 그 여성었습니다.

“이 파티 후에, 저는 가족과 함께 2주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제 선교사 친구가 제가 파티에 데리고 갔던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마릴린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이 운전을 하고 우리는 다른 여덟 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운동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 일은 어느 젊은 여성이라도 다시는 저와 데이트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저는 우리 가족이 초크체리를 따러 협곡으로 갈 때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끼리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마릴린을 데리러 가면, 다시 우리가 아버지를 집에다 모

셔 드리고, 데이트를 한 후에, 아버지를 모시러 집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그녀를 다시 집까지 데려다 준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를 할 때 제가 결혼하자고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몇 번 더 데이트를 하면서 여러 차례 청혼을 한 끝에 마침내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얻어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일보한 것이라 생각하고 끈기 있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닌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대관장님께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저희 결혼을 집행해 주셨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 당시에 저는 이 젊은 여성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전에는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만큼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수많은 직책을 맡아 왔습니다. 음악지도자, 장로 정원회의 모든 직책, 와드 보조 서기, 와드 선교책임자, 집행 서기를 했으며 지금은 감독단 보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백화점의 간판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13년 전에 작은 집을 샀으며,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집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을 조금씩 확장한 것이 이제는 두 배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년 전 6월에 새로 운 의사에게 가서 눈을 진찰했는데, 그는 제게 운전 면허증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운전 면허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시력이라면 아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앉아 있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가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의사의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는 저를 운전 교육 과정에 등록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저는 면허증을 취득하러 갔으며 검사관들이 제 눈을 검사했습니다. 담당 의사의는 제 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밤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견을 적었습니다. 검사관은 그 서류를 보여 주었고 저는 그 즉시 그 사항을 읽었습니다. 그는 감독관에게 이야기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사소한 제한 사항만 두고

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님, 주님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눈이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이 얼마나 행운이냐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며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실망하신 적도 있으며, 또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님이 저와 저

우리는 자립심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이 화평과 사랑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교화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에 합당하게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는 감사와 간증으로 편지를 맺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편지가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매우 감동적으로 말해 준다고 느꼈기 때문에 꽤 긴 이 편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의 책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성하고 감동적인 신뢰를 받으며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구속 사업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올려 주고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자립심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자녀들이 화평과 사랑과 감사의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교화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 드린 편지를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16세 내지 17세의 소년 시절에 그 연령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목적도 없이 위험하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독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감독님은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인식하고 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그 재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감독님은 현명하게도 대부분의 젊은이는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면 그런 목표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와드에서는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소년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활동이 저조하던 이 소년은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었으며, 감독님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함으로써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옆길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활동화시킬 훌륭한 열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사용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런 재능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제가 책이라고 부를 이 편지의 소년은 반응을 보였으며, 곧 자신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대신에 교회의 방향에

따라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 사업을 나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니오 보다는 예라고 대답하기에 익숙해져 있던 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선교사 비용을 직접 모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 요구 조건에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러 다녔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돈도 저축했습니다. 그가 1천 불을 모았을 때 감독님은 다시 영감을 받고 책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 정원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도와 줄 것이었고, 그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대개 사람들이 올바르게 대했을 때 그렇듯이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자각하며 그 일을 떠맡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저는 책이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를 두서너 차례 접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 훈련원이 없었으므로 젊은이들이 언어에 대한 훈련도 없이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가 심각한 시력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언어를 터득하고 힘차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굉장한 노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있었겠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열렬한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경우에는 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후에 그와 결혼한 그 젊은 여성을 일본에서 처음 만나고 여러 번 접견했습니다. 그 자매는 훌륭한 영성과 깊은 신앙과 놀랄 만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지역에서 서로 한 번 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공통점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위대하고 희생적인 봉사의 대업에 참여하여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간증을 나누기 위해 배웠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의 편지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은 제게 결혼식을 집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결혼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들 둘은 주님의 집에서 성신권의 권능에 의하여, 죽음도 깨뜨릴 수 없고 시간도 무효로 할 수 없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 부부가 주님의 집에서 맺은 거룩한 성약을 참되게 지켜 온 것은 참으로 그들의 명예입니다.

다섯 명의 아름답고 잘생긴 자녀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며 존경하는 가족입니다. 그들은 자립 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점차 커진 이 작은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권고하고 배우는 가정입니다. 그곳은 경전을 읽는 가정입니다. 가족 기도와 개인 기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봉사를 가르치고 모범으로 행하는 가정입니다. 단순한 가정이며 가식이 없는 가정입니다. 큰 부는 없지만 평화와 선함과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에베소서 6:4)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매와 어린이를 위한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국가의 선한 시민입니다. 그들은 이웃과 화평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의 시력이 향상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복음의 정수인 병고침과 회복의 권리, 뒤따라오는 인식과 감사입니다.

증가되는 활동 촉진의 필요성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이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저의 이 친구들은 세상적으로 크게 부하지는 않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요하고도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은 위대한 구속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훌륭하고 영속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더 많이 행해야 합니다.

님은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보고드릴 책임이 있으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복음 14 : 6 참조)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며, 참됨과 기쁨과 화평과 병고 침은 교회의 가르침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걷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9 :18 참조)

잭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그 두 형제님이 잭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흐뭇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훌륭한 활동 촉진 사업을 위하여 밤낮으로 봉사하는 이 두 분과 같은 감독님이 수천 명도 더 됩니다. 또한 감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조용한 사랑의 표현과 봉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아 다시 활동화된 잭과 같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은 위대한 구속 사업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훌륭하고 영속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모두 더 많이 행해

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찾아내고 강화시키라는 신성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가정은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며, 어떤 국가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덕으로 밀미임아 강해질 것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당당하게 권세를 갖고 신성하게 정해진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구속 사업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올려 주고 구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업입니다.

2. 또한 이 교회에는 감독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조용한 사랑의 표현과 봉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아 다시 활동화된 잭과 같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우리 모두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의 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때로
좋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나 가즈나비
사진 촬영 : 글쓴이

재슬린 심슨은 단 두 명만이 있는 꿀벌반에서 신앙이 도약하는 계기를 가졌다. 뉴질랜드 웰링턴 스테이크, 크로프톤 다운즈 와드의 꿀벌반 고문은 반원들에게 선교 사업에 관한 공과의 일환으로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재슬린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재슬린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에이미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미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재슬린이 보인 작은 사랑의 행동이 가장 친한 친구인 에이미 발렌타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에이미는 재슬린의 초대를 받아들여 함께 교회에 나왔다. 그 후 에이미는 두 달 동안 일요일 모임과 주중의 여러 활동에 계속 참석했으며, 그 무렵 재슬린의 가족은 호주 시드니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기도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재슬린 가족이 이사를 가기 전에 저는 그들이 없더라도 계속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무렵, 저는 교회에서 몇몇 다른 사람들과 알게 되었어요.” 하고 에이미는 말한다.

그 중 하나가 크로프톤 와드의 또다른 꿀벌반원인 미셸 브로체이었다. 미셸은 에이미를 집으로 초대하여 선교사 토론을 갖게 하였다. 에이미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았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에이미는 교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계속 신앙 생활을 잘 하려고 했지만, 침례를 받고 한동안은 적용하기가 힘들었어요.” 비록 에이미의 가족과 다른 친구들은 회원이 아니었지만, 미셸의 우정과 사랑은 에이미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에이미는 이렇게 설명한다. “미셸은 놀라운 모범을 보여 주었어요. 제가 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미셸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늘 그런 일들을 해 왔어요. 에이미가 교회에 들어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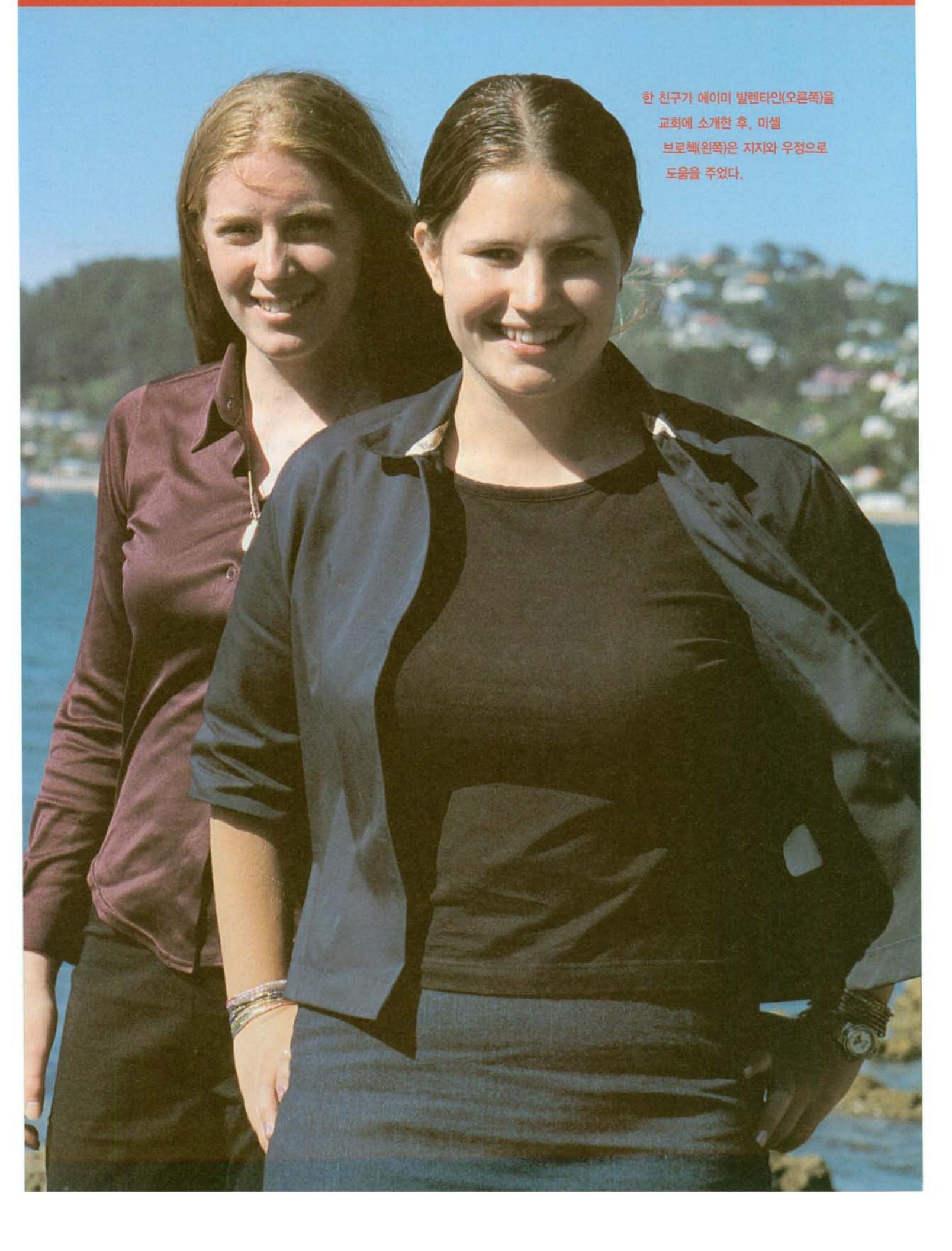
다고 해서 돋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미셸은 특히 구도자나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을 강화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권고한다. “여러분의 간증과 자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쓰세요.”

에이미와 미셸은 서로에게 큰 힘을 얻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강한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주 몰몬경 책 갈피에 자신들의 간증을 적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준다.

나의 집에 사랑이

비록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에이미는 가족 내에서 유일한 회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부모님께 복음 생활의 모범으로 다가갑니다. 모범은 부모님께 복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 드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스위치입니다.”



한 친구가 애이미 밸렌타인(오른쪽)을
교회에 소개한 후, 미셸
브로체(왼쪽)은 지지와 우정으로
도움을 주었다.

가족 안에 또다른 교회 회원이 없기 때문에 에이미는 성전 결혼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녀가 이루고 싶어하는 가족은 복음 안에서 강하고, 가족 경전 공부나 가정의 밤과 같이, 그녀가 현재 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할 가족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에이미는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이는 모

범과 교회 활동이 결국에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그녀는 많은 기도를 하고 청녀 프로그램에서 힘을 얻음으로써 활동적인 회원으로 남아 있다.

에이미는 현재 월계반원으로서 그리스도께 좀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관 활동을 선택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금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잘 알게 되는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분을 보다 잘 알게 되는 방법은 더욱 그분

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에이미는 경전의 도움을 받아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열거하는 목록을 작성했다. 그녀는 신앙, 자비, 관용과 같은 속성을 찾아내었고, 목록에 나오는 각각의 속성들을 한번에 하나씩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이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이지 열심히 공부하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세요. 스스로 복음에 대한 간증과 이해를 얻도록 하세요. 간증과 이해는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이해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사랑의 노고

그녀가 다니는 와드의 모든 청녀들이

에이미의 삶이 사랑의 노고라는 것에 동의한다. “누구라도 에이미와 같이 복음에 헌신하는 친구를 갖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제 막 청녀 프로그램을 마치고 상호부조회로 옮겨온 켈리 버터스가 말한다.

에이미는 복음의 은사가 자신에게 나누어진 것인 것만큼, 자신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그녀와 미셸 그리고 스테이크 내에 있는 다른 청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계속해서 복음과 간증을 나누고 있다.

5년 전에 재슬린이 행한 조그만 신앙의 실천이 에이미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에이미의 모범과 간증을 통해 계속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고 있다. □

한 해 동안 청녀 한 명에게
올 도움의 손길을 뻗어 교회에
서 활동 회원이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은 활동이 저조하거나, 최근 개종했거나, 회원이 아닌 소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청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녀 또한 … 하늘의 감미로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 여러분 각자가 도움의 손길을 뻗어 단 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이 초대를 받아들인다면, 내년에는 두 배가 되는 청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부모님과 지도자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읍시다.” –마가렛 디 네이돌드, 본부 청녀 회장(“보혜사, 안내자, 중언자”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11) □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얻음



우리는 보고 듣고, 특별히 영이 속삭여 주는 것을
느낌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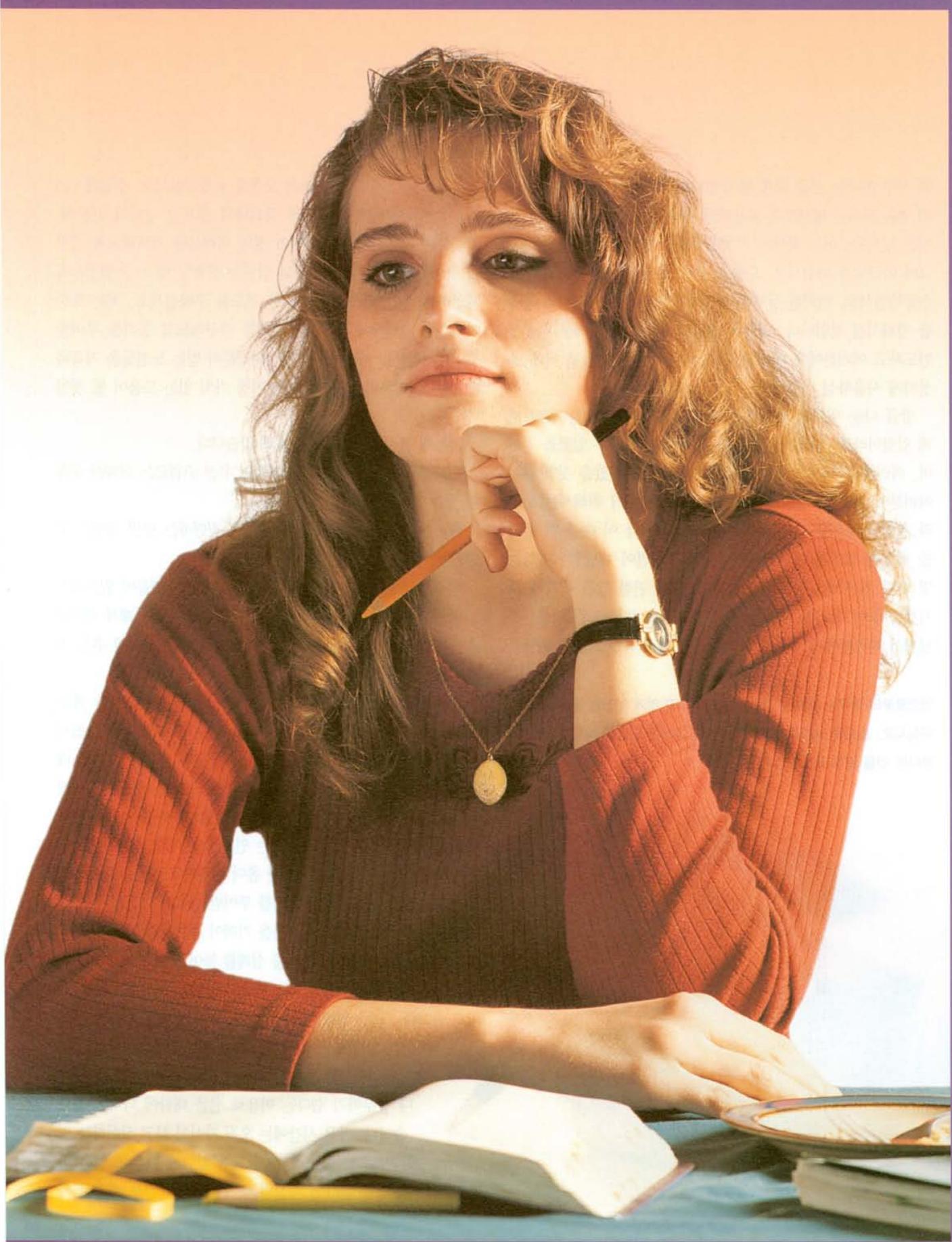
제 말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제가 드릴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적용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리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을바로 이해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축복들을 가져다줄 한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리는 제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그 풍부한 잠재력

을 다 드러내려면 중대하고 확고한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여러분은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꾸준히 배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내가 배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특히 성신이 속삭이는 대로 느낌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움을 주로 자신들이 듣거나 자신들이 읽는 것에 국한시킵니다. 현명해지십시오. 보는 것을 통해, 특히 성신이 여러분에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기술을 개발하십시오.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의식적으로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러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신의 속삭임을 듣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한 속삭임을 인식하고자 힘쓰십시오. 영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안전한 곳에 적어 두십시오. 소중한 느낌들을 기록한다면, 그러한 느낌이 더





옥 자주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얻는 지식은 평생도록 유용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밤 이든 낮이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영의 지시를 인식하고 그에 따르고자 하십시오.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에 순종하십시오. 이러한 실행은 성신에게서 배우는 여러분의 능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내재된 다른 모든 잠재 능력들을 더욱 풍성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방금 나눈 원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있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에서 중대한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꾸준히 배우기 위해서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원리를 실행해 보기를 제언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테니, 그에 관한 답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대답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깨달을

영으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안전한 곳에 적어 두십시오. 소중한 느낌들을 기록해 둘 때 그러한 느낌이 더욱 자주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영이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염원을 실현할 몇 가지 방법들을 제언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인도를 구하십시오. 저는 또한 여러분이 강력하게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느낌들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선 순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꿈과 대망을 실현하는 데 직면하는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유혹을 극복하고 의롭게 생활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힘을 주실 수 있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제가 드릴 권고를 숙고하며, 주님께서 오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의 속삭임을 깨닫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저는 마치 두 사람이 상호 신뢰와 공통된 믿음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순수한 느낌을 나누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듯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근원적인 동기는 인기 있는 일을 하여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현명한 사람들은 구세주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은 주변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원리들을 기꺼이 옹호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에 따른 각각의 결과를 실례를 들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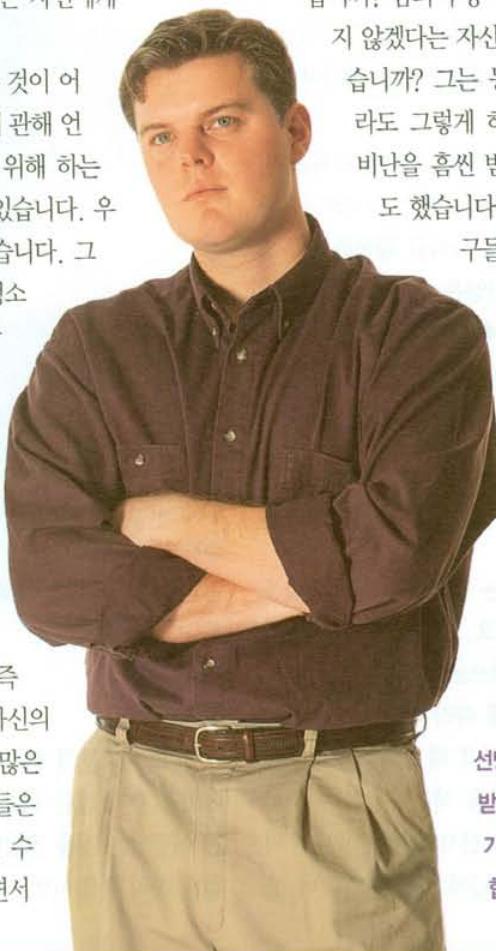
최근에 저는 훌륭한 부모를 둔 총명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엄청난 물질적, 영적인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업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4년제 대학에 다니는 것보다 공부하기 쉽다는 이유로 전문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유 시간에는 오직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합니다. 그는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일을 한다면 자신의 즐거움에서 시간을 빼앗아 가



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나리는 단지 이수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배운 지식들을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진심에서 우리나라를 충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보기에는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들은 형제님이 원하는 풍성한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고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는 편안한 삶을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한동안 그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형제님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형제님이 내리는 모든 결정 때문에 미래의 폭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여러 가능성과 선택권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이며 그때가 그리 멀리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남은 평생 동안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원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이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선교 지역에서 계발되기 시작했는지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은 자신을 위해 하는 뭔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위한 최상의 성장과 준비를 갖추게 하는 시기는 선교 사업 기간 동안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참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들은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만 그 가치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 즉 기도, 금식, 간증 등을 통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돋고자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일들은 사실 없이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에게 축복을 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방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주님께 어떤 방법으로든 그가 올바른 우선 순위를 택하도록 감동을 주실 것을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 상황에 있는 다른 청년에 관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그 부모가 그에게 어릴 때부터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도록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범과 훈계로써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목표를 성취하도록 수양을 쌓고 희생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러한 특성들이 자신의 성격에 스며들도록 해 주는 활동으로 수영을 택했습니다. 새벽 수영 연습을 하는 데는 수양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영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일요일에 개최된 것입니다. 그가 경기에 참가했습니까? 팀의 우승에 일조하기 위해, 일요일에는 수영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규칙에 예외를 두도록 합리화시켰겠습니까? 그는 동료그룹의 압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경멸에 찬 비난을 흠씬 받으며, 심지어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따돌림, 외로움, 압력 등을 받으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고의 실체를 실제 체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저는 여러 해 동안,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

어떻게 하면 대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장막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의 수많은 근원 가운데 여덟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에 당면한 중에서도 수많은 옳은 결정으로 점철된 이 지속적인 의로운 생활 패턴이 어떻게 힘과 능력의 성격을 발전시켰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선교사로서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일하는 능력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혼들림 없는 혼신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결의로 인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 이 이제는 동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에서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장막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의 수많은 근원 가운데 여덟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간증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앙에 의존해야 할 때가 상존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경험이나 성신의 신성한 증거를 통해 증명되지 아니한 진리들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도록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 보십시오. 신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증거가 희박해 보이는 경우에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게 갖게 해 주는 힘의 근원입니다. 지속적인 행복은 신앙에 따라 생활 속에 실천되는 변치 않는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침이 되는 원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침이 되는 원칙들을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정하십시오. 그러한 표준이 있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일상적인 압력으로 인해 그릇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 따라 생활하기로 정해 놓은 원리들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원리들을 세우십시오. 지침이 되는 원리들을 사용할 때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인생에서의 비극과 실망과 성취의 결여는 자신이나 주님에게 부정직할 때 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 보십시오. 신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증거가 희박해 보일 경우에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원리를 굽히지 마십시오. 힘과 안전은 원리에 예외를 두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원리에서 약간 이탈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합리화란 사람이 참된 것을 가져다 무가치

한 예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왜곡하게 합니다. 합리화는 사람을 진리로부터 이끌어 내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인생에서의 어려움은 상황에 근거하여 표준에서 이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순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의 꼬드김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윤법을 어기고 인생의 위대한 기회를 손상시킵니다. 그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리에 둔다면, 성공과 행복은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커다란 위안과 인도와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여러분은 일상 생활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틀에 박힌 황급한 기도를 드리도록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위안과 위로와 지시와 커다란 내적인 힘을 주는 기도는 이노스가 드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의] 계명을”(이노스서 1:8, 10) 부지런히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노스의 다음 말씀들은 중요한 뭔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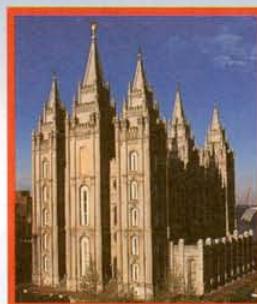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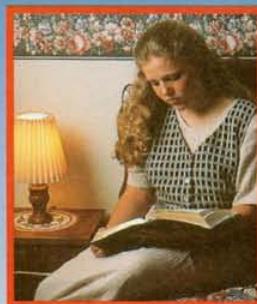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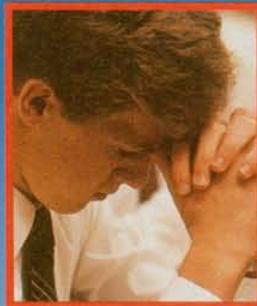
“나 이노스가 … 주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 오랫동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가 이토록 열심으로 기도하여 구하고 나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신앙이 지극하매 이제 내가 너의 원대로 네게 이루리라 하시니”(이노스서 1:11~12)

무엇인가를 위해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은 종종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이해력과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경전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곰곰이 생각할 때 이해와 힘을 주는 탁월한 근원입니다. 경전은 진리를 믿는 신앙을



진작시킵니다. 계시된 진리를 부지런히 생활에 적용할 때, 그러한 진리는 합당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가 증대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를 고수하는 자제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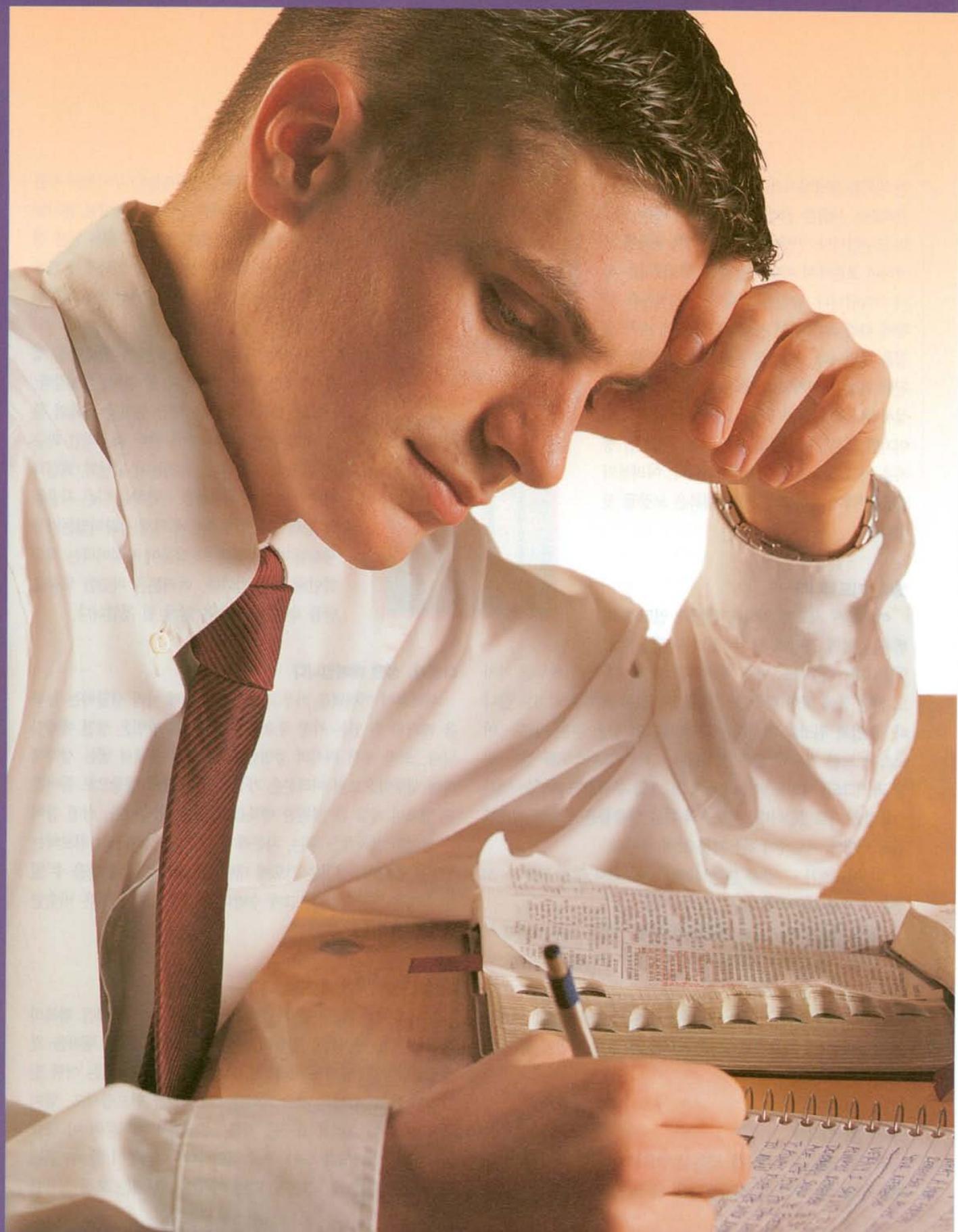
경전에는 꾸준히 진리에 따라 생활했을 경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감과, 필요한 경우, 그 일을 행할 신성한 권세의 문을 어떻게 열어 주는가에 관한 감동적인 확증의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의심과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주님에 의해 강화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성령은 그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슷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성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력을 키우고 영원한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성전 예배입니다. 오직 성전 의식의 충만함을 받고 그 곳에서 맺는 성약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가장 큰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 참여는 평안과 만족감을 주는, 차분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로하는 영향을 줍니다. 성전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가족 역사 사업은 비슷한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여섯째, 도덕적인 깨끗함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겠다는 여러분의 목표는 지속적인 행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그러한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으십시오. 힘이 필요할 경우, 그리고 요구될 경우,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때,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신뢰는 모든 장애를



여러분은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 주기적으로 가서 명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의 중압감 속에서 명상할 시간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일곱째,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주님께서 도움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며 기꺼이 진리의 원리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대한 성취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요구한다는 값진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깨뜨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원하기 하지만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축복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덟째, 좋은 음악입니다

좋은 음악, 특히 성스러운 음악은 영적인 것을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한 음악은 교훈적이며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좋은 음악은 성령의 속삭임에 반응하도록 정서를 순회합니다. 사악한 음악의 독소로부터 멀리 떨어지십시오.

우리들의 개인적인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훈계를 늘어놓은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제게 의미 있는 삶과 더불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제언하겠습니다. 어떤 장소들은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성신의 지시를 분별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성전이 그러한 곳입니다. 다른 장소들을 그런 식으로 존중하고 행동을 삼가함으로써 거룩한 곳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 주기적으로 가서 명상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의 중압감 속에서 명상할 시간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빠르게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릇된 길에 든 것이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주기적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은 개인 재고 조사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자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유 시간 가운데 일부가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 중단하겠다.

이 메시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자신이 느낀 소감을 글로 적어 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으로 가든 여러분의 의로운 생활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저녁 말씀 드린 것을 실천해 왔거나 앞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이 순간을 위해 남겨 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소리 높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잘 응답됩니다. 저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을 얼마나 잘 증거하는가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분의 속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온 능력을 다해 그가 살아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순종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

2001년 1월 23일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인 말씀에서

장로님,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1886~1983)

나는 어렸을 때, 아직 집사 신권을 받기도 전에, 와드 모임에 참석했는데, 두 명의 선교사가 남부에 있는 여러 주에서 자기들이 행한 선교 사업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나는 선교사의 부름이 주어진다면 세계 어느 선교 지역이라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나의 작은 침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가 성장하여 선교사의 부름을 받게 되면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생활을 하게 도와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델란드로 가기 위해 솔트레이크 역에서 기차를 타게 되었을 때,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

내가 그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당시 대관장단 보좌로 계시던 앤톤 에이치 런드 부대관장님(1844~1921)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

그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그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네델란드를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내가 교회로 인도한 개종자들을 찾아다니며 작별의 인사를 나누며, 선교 사업을 떠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흘렸던 눈물보다 천 배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예로, 암스텔담에서 내가 그곳에 방문한 첫번째 선교사였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차즈 형제님, 몇 달 전에 제 딸이 시온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형제님이

가시는 것을 보니 더욱 견디기 어렵군요.” 그 순간 나는 런드 부대관장님께서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하신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 갔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제복을 입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의 손을 잡더니 그 손을 꼭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 때 나는 다시 런드 부대관장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감리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그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했다.
기이한 업적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교회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사랑을 지닌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교 사업보다 더 위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 제 삶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성공을 맛보는 것만큼 훌륭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껏 해 온 모든 선교 봉사를 돌이켜 볼 때, 나는 아들을 길러 선교사로 내보내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197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제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여러분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서 들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오해와 편견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일성도라는 이유로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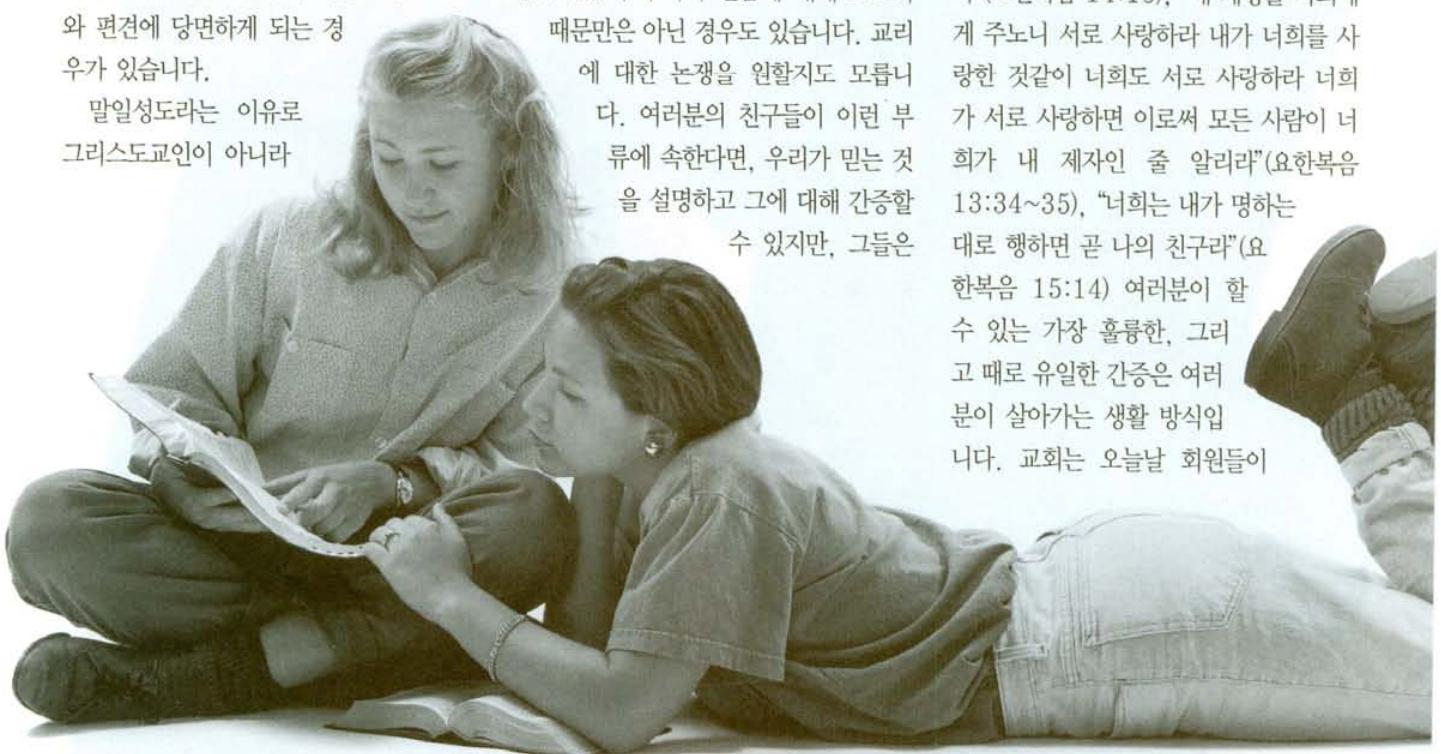
고 하는 비난에 당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설명하고 그분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의 깊은 혼신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 모르기 때문만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교리

에 대한 논쟁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 간증할 수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행위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4)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리고 때로 유일한 간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회원들이





말일성도는 그리스도교인이다

“**우** 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 대해 항상 그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말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오해가 눈덩이처럼 계속 부풀려지고 널리 전파되어 왔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나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선의가 인정받는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4쪽)

보여 주는 선한 생활로 인해 세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좋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독자의 대답

행위가 말보다 더 큰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신앙과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하며, 주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슈 양 웬,
타이완 타이난 스테이크,
치아 이 제1와드



미사키 케이쿄,
일본 나고야 스테이크,
고키소 와드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며 살아 계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간증 가운데 굳세고 강건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도서 3:1)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이 교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 간증 그리고 굳건함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오프리 엔 놀,
필리핀 파니키 지방부,
파니키 제1와드

저는 현재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성신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증거해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100:8)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라벨라 아벨로 랑케,
필리핀 올롱가포 선교부

제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사랑을 모범을 통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진리를 알게 되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으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 주는 모범, 신앙, 사랑 및 순종을 통해 친구들이 제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야 사파르베코브나
비셈비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선교부,
나코드카 지부

주님께서 하셨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고통 당하는 자들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 알리지게 될 것입니다.



켈레피 토아 파메이타우,
호주 시드니 하이드 파크
스테이크,
이트스 레이크스(통가인) 와드

행동은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야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모범과 사랑, 봉사, 친절, 겸손, 자비를 통해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멜빈 도리안 로다스 로페스
장로,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선교부

제가 친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의미하는 바와 우리를 위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리첼 엠 비구엘,
필리핀 알리시아 지방부,
에차구에 제1지부

저는 친구들에게 만일 제가 예수 그리

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신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나 블라디미로브나
클라포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부,
카코드카 지부

만일 친구들이 구세주를 믿는 제 믿음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면, 저는 침례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활동에 그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읽을 만한 책을 교회 도서실에서 빌려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하기애 앞서 영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에스더 앤 니네데이스,
나이지리아 카라바르 지방부,
칼라바르 제1지부

이러한 경우에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제 믿음이 정확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은 모든 것들의 진실을 명확히 알려 주십니다.



레이이나 과달루페 오로즈코
포르提로,
멕시코 쿠리아칸 타마줄라
스테이크,
리스 후에르타스 와드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힘 닿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생활하는 방식과, 복장과, 우리가 택하는 오락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친구들이 당장에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모범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 준 신앙의 유산을 기억할 것입니다.



루시아 세실리아 페레스,
아르헨티나 트렐류 북
스테이크,
유니온 제2와드

질의 응답은 청소년 특집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보내 온 응답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을 골라 게재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2002년 9월 1일까지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09/02,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티자하거나 정서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명칭이 적혀 있는 응답만 채택됩니다.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 놓은 목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

봉사와 선행을 기뻐함

여러분의 방문을 받는 자매들과 함께 다음 내용을 읽고 질문이나 성구,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경험과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모사이야서 2:17: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앨마서 37:34: “선행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며 다만 온유하여 마음을 낫추기를 가르치리니, 그렇게 하는 자만이 자기 영혼의 안식을 찾을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58:27~28: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 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칠십인 정원회의 로버트 제이 훼튼 장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속죄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니파이삼서 27:27)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복리와 신체적 복리에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그것 또한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참된 관심과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참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분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목숨을 버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구세주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들, 즉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어야 합니다.” (“참된 추종자”,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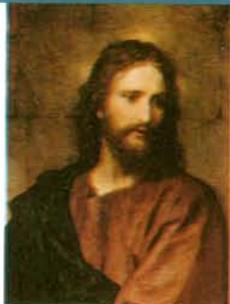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린 에이치 육스 장로: “우리는 개심의 과정을 통해 영생이라 일컫는 지위와 상태로 나아오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영생을 이루려면 그저 올바른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이유, 곧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유명한 가르침에서 이 점을 명확히 보여 주

고 있습니다.(고린도전서 13장 침조) 사랑이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그가 열거한 어떤 선행보다도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인 박애의 사랑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개심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들의 연속을 통해 얻게 됩니다. 사랑이란 사람이 되어가는 그 무엇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로나이가 선포했듯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아버지의 전당에 마련된 처소를 ‘상속으로 얻지 못할 것’(이데서 12:34)입니다.” (“무엇인가 되어야 하는 과제”,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4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 단제 2보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영의 자녀였던 태초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로운 원리를 따르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아호나, 2001년 6월호, 4쪽)

-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 봉사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우리는 어떻게 봉사를 통해 더 큰 “기쁨” 얻을 수 있는가? □





벗나간 내

이름을 밝히지 않음

삽화: 키스 라슨;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원

주님의 영을 통해, 나는 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딸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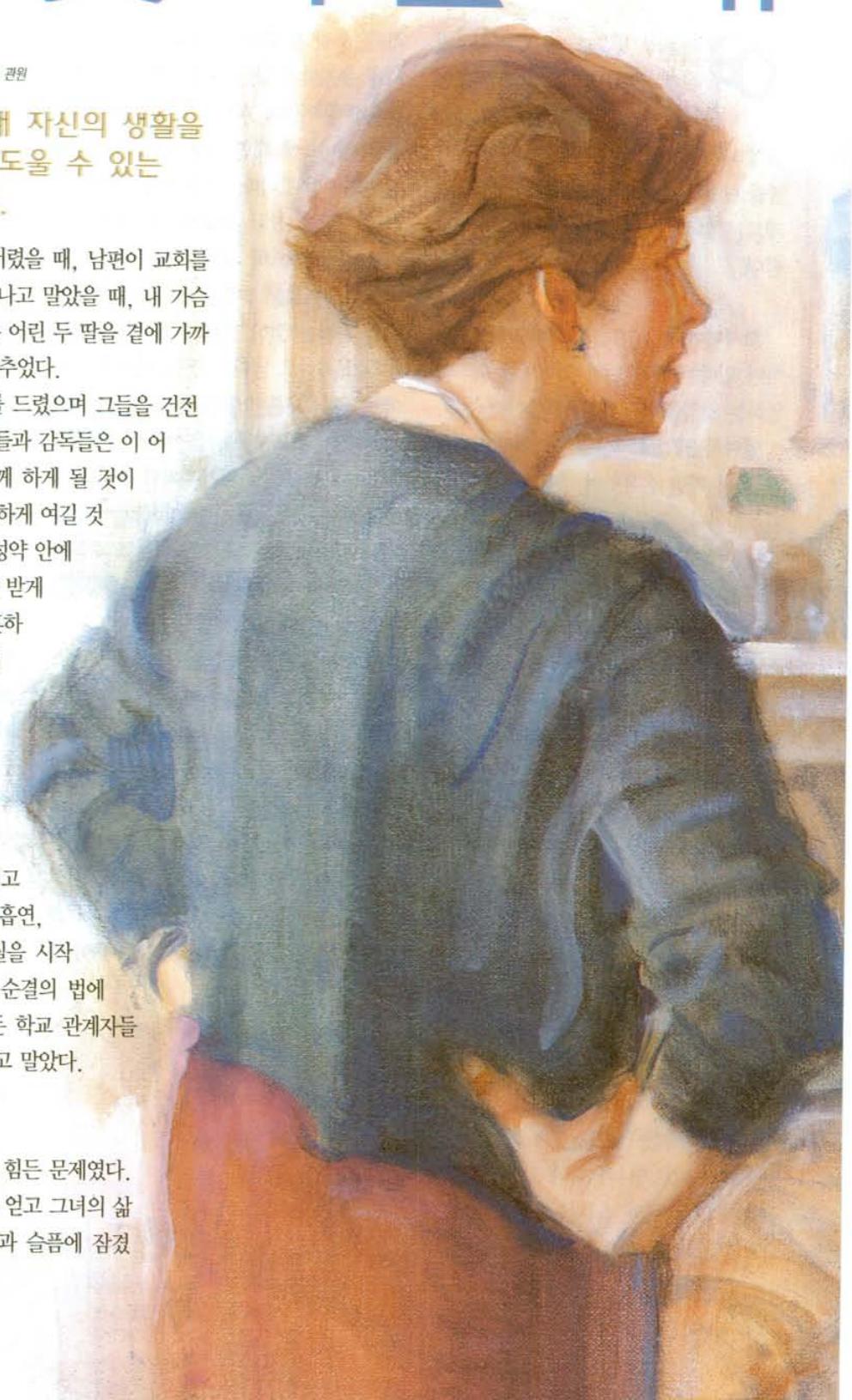
여러 해 전에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남편이 교회를 떠나더니 급기야 내 곁을 떠나고 말았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 두 딸을 곁에 가까이 두고 우리 생활의 초점을 복음에 맞추었다.

나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으며 그들을 건전한 활동에 참여시켰다. 가정 복음 교사들과 감독들은 이 어린 자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해 치른 희생을 감사하게 여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나는 아이들이 성약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을 상속 받게 되리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었다. 이혼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나는 충실히 밀알성도와 결혼했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작은 딸로 인해 심각한 문제들을 겪기 시작했다. 어려서는 행복하고 활기에 찬 아이였으나, 시춘기에 들어서자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반항적이며 호전적이 되었다. 그 아이는 흡연, 음주, 마약 사용, 그리고 가게 좀도둑질을 시작했다. 그녀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했고 순결의 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모든 학교 관계자들에게 반항했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

절망적인 시간들

이것은 내가 겪은 어느 어려움보다도 힘든 문제였다. 남편과 나는 딸 아이가 회개하여 간증을 얻고 그녀의 삶에서 평안을 얻기를 바랐다. 나는 낙담과 슬픔에 잠겼



자녀를 사랑함



으며,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아이를 잃지 않게 해주시라고 애원했다. 남편과 나는 함께 상담도 하고, 감독님께 조언도 구해 보았다. 성전의 기도 명단에 딸의 이름을 써 넣기도 했다. 인내심 많은 남편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딸 아이가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별 영향을 줄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신권 축복을 여러 번 받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딸 아이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도 해보았다. 문제 있는 자녀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전 구절이나 책들도 읽었다. 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상담을 통해 조언도 구해 보고,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도움과 영향을 주도록 부탁도 해보았다.

나는, “가정 생활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나 끝이 나려는가?”라고 의심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악몽들, 즉 십대의 임신, 성병, 약물 중독,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한 죽음과 같은 일들을 걱정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나의 능력에 대해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나는 절망적이었으며, 슬프고, 미칠 것 같았고, 화가 났으며, 무기력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킴

그렇듯 절망에 싸여 몇 년을 보낸 후에, 나는 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딸을 도우려는 노력이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방법은 겁에 질린 격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탄은 절망과 불행의 장본인이다. 나는 그릇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것이었다.

나는 다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더욱 강하고 더욱 확고한 영성을 쌓기로 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였었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나의 많은 축복들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딸 아



이의 좋은 자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는가? 나는 순종적인 다른 가족에 대해 감사했는가? 내 인생의 즐거운 순간들에 감사했는가? 아름다운 일몰이나 포근한 비를 즐겼는가?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되어 내 생각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간증을 반영하지 못했다. 나의 표정은 구세주에 대한 나의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지 못했다.

나는 변하기로 결심했다.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 전념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서적을 읽었고, 내용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을 멈췄다. 스트레스를 없애 주고 내 영을 고양시켜 주는 개인 운동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전 공부 습관을 바꾼 것이다. 나는 아침 시간에 정신이 가장 맑기 때문에, 아침 일찍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때로는 단지 몇 구절만 읽었고, 어떤 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짐에 따라,
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앙
또한 커 갔다.

몇 장씩 읽기도 했다. 차에서는 라디오를 끄고 그 날 아침에 읽은 것을 깊이 생각했다. 차 안에서 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라디오에서 듣는 뉴스나 교통 정보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계시를 받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좋은 느낌들이 나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책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교회의 일들을 준비하는 방법들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또한 나의 소중한 딸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영감도 받았다.

어느 날 나는 우리가 공유하는 긍정적인 것들로 대화의 주제를 돌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확실히 우리의 음악, 미술, 고전 영화 등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는 원만한 대화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손상된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는 첫 단계에 도움이 되었다.

다른 날 아침 나는 강압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후 여러 달 동안이나 그 느낌은 계속되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유의지가 그분의 계획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 나는 비록 어떤 일이 옳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사탄의 계획이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변화는 어려웠으며, 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때때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계속 노력했다. 우리는 부모로서 여전히 가정에서 받아들일 만한 표준을 세워야 했지만, 딸 아이는 내가 전보다 덜 감정적이고 보다 큰 확신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느낌들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영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시기를 알려 주었다. 그러한 느낌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힘겨워 할 때,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조용히 일깨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한번은 참된 개종은 주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영이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딸이 내가 말한 대로 행하기를 간구하는 대신, 그녀가 마음의 변화를 갖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딸과 구세주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들을 찾았다. 예를 들면, 딸 아이는 폭력적인 세상에는 구세주의 온화한 방법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영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내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더욱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탈선한 가족으로 인해 겪는 이러한 경험은 내가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신뢰를 갖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도 탈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빗나간 자녀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닌 약점들은 그녀의 경우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역시 순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짐에 따라, 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앙 또한 커 갔다. 그분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내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녀에게 의로운 일을 하도록 영향을 주시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내 역할은 그녀 곁에 가까이 있어 주고 최선을 다해 구세주와 같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

현재 딸은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은 아니지만, 잘 살고 있다. 최근에 그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며 좋은 직장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다. 딸과의 관계는 매우 좋아졌다. 나는 딸이 언젠가는 유년 시절에 받았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밝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거쳐 오면서 나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에서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딸로 인해 겪은 경험들 또한 내가 구세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주었다. 그러한 경험들은 내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고, 속죄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를 드리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갖도록 가르쳐 주었다. □



“여러분께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저의 마음은 많은 경우에 있어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 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이 그 짐을 부모되시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이해하여 여러분께로 다가오게 하며, 외로움에 빠진 이들에게 위안과 지지를 안겨 주길 바랍니다. 인도와 인내심을 간구하십시오. 비록 심각한 죄를 진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십시오. 이해와 친절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영감을 간구하십시오.”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67쪽) □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성전 사업의 교리

성전은 계시와 영감 그리고 명상과 평화의 장소입니다. 또한 자신을 회복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 받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곳입니다.

젊 은이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저는 맨타이에서 약 40 마일(65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중부 유타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귀대 얼마 전에, 맨타이 성전에 작은 부속 건물을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고, 교회지도자들은 그 일에 도움을 줄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작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으며, 곧바로 곡괭이를 사용하여, 커다란 바위들을 깨고 성전 밖에 있는 돌들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이 하루 종일 내리쬐였으며,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지루했습니다. 몇 번은 다른 바위들을 제거하려고 애쓰면서 자원 봉사자로 지원하라는 요청에 너무 성급하게 응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면서, 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매우 힘든 노동을 하던 중에 성신이 제게 앞으로 언젠가 다른 성전들을 선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을 듣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척 고요했지만 매우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목장으로 일하러 돌아갈 준비를 할 그 무렵에는, 제가 어떻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될지 전혀 분명치 않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영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저는 이따금 그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런 일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제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저는 이 감동적인 성장의 시기에 교회의 성전부에서 일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좀더 가깝게 가져가려는 고든 비 헝클리 대관



|진 © INTELLECTUAL RESERVE, INC., 복사 금지:
: 사진 삽화: 스티브 벤더슨; 배경: 사진 촬영: 웰든 시
, 유타 마운트 팀파노고스 성전의 해의 왕국실: 사진 촬영:
출드맨, 시모아 아피아 성전: 삽입: 사진 촬영: 태모라
라티에타, 유타 버널 성전 침례반

장의 결심을 직접 보았으며, 저는 성전 의식을 통해 올 수 있는 축복에 대한 그 분의 열의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헝클리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모든 설득력을 다하여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추천서를 받고, 그것을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며,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영과 축복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¹ 이 말씀을 통해 헝클리 대관장님은 그 분 이전에 계셨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성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오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이 의식을 행하기에 게을리 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²

분명히 성전 의식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또한 그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성전의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통찰을 전해드리고, 또한 성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방법들에 대한 몇 가지의 조언과 실질적인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성전 사업”的 “일”

성전 사업은 봉사의 행위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곳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성전 현납식에서 헝클리 대관장님은 우리가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인적인 유익에 많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로서의 성전 사업에 초점을 맞추라고 제언하셨습니다.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오는 개인적인 축복은 무수히 많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이며 결의와 의무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사업은 교회에서 하는 다른 형태의 봉사, 이를테면 선교

사업이나 누군가에게 긴급히 도움을 제공하는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방문 교사의 부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봉사 활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흔히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언자는 우리가 성전에 참석할 때 그와 똑같은 자세와 태도를 갖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전 참석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행위여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 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³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성전에 간다면, 우리는 실제로 최대의 영적인 유익에 이르는 통로에서 단절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참석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는 활동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일이란 흔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놀이로 생각할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그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전 참석을 단순히 수동적인 활동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의식 봉사자와 일반 참여자로 성전에 참석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은 한 명백한 예가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의식 봉사자는



“저는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추천서를 받고, 그것을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고, 주님의 집에 가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영과 축복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그것이 정말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우는 것에서부터 절차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과정은 의식 봉사자들이 의식에 익숙해지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맨타이 성전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발견했던 것처럼, 기꺼이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구

세주께서 가르치신 비유와 마찬가지로 성전 의식도 단순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높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깊은 의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 피난처요,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고되고, 무겁고, 엄격하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성전에 간다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전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가운데 하나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회원들이 의식 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봉사의 자세는 우리가 옛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경전 비유 사이의 유사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의식이나 경전 비유에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여러 비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부하고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예를 들어, 열 처녀, 달란트, 잃은 양, 미망인과 불의한 재판관, 또는 텅자 등의 비유에는 보통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 그 똑같은 이야기 속에 왕국의 중추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는 놀라운 진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의식도 단순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높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깊은 의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본 교리

성전의 핵심 기능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과 그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힘있는 성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기록에 관한 순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여길지 모르나, 이는 다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창세 이전에 제정하시고 준비하신 의식과 준비에 순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일러 두노라 …”

“…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바울이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⁴

조셉 애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의 강력하고도 계시적인 시현을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느니라.

“이러한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대리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배웠으며,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원리도 배웠느니라.”⁵

산 자를 위한 기본 교리

성전은 계시와 영감 그리고 명상과 평화의 장소입니다. 또한 자신을 회복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예배와 봉사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현세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



주는 능력을 이 땅에서 지니도록 내가 성임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 계시와 계명으로써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써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아니하거나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나는 말일에 나의 종 요셉을 임명하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으나니, 이 신권의 이 권능과 열쇠를 부여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대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을 맺느니라.”⁶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서약”⁷의 최고의 가치를 말씀과 공과와 모범을 통해 서로 가르치도록 합시다. 한 부부가 성전에서 신권에 의해 인봉될 때 새로운 가족이 조직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부나 와드 또는 스테이크가 조직될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기본 단위인 새로운 영원한 가족이 조직될 때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신권 소유자가 이 새로운 조직을 합당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부름에서 해임되겠지만, 가족의 조직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역할에서는 해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번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에 관한 교리를 극히 대담한 교리로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세대를 통하여 볼 때에 주께서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실제로 계시로써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실 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을 부여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참되고 충실히 행하고 그 일을 올바르게 성실히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대하신 여호와의 정하신 법령에 쫓아 땅과 하늘의 율법이 되며 어떠한 자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도다.”⁸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입니까?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엔다우먼트는 주님의 집에서 그러한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이며, 이 의식은

여러분께서 이생을 떠난 후에 여러분께 필요한 것으로 파수꾼으로서 있는 천사를 지나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 영원한 승영을 얻게 해줍니다.”⁹

엔다우먼트라는 말은 영 대관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여정을 위해 가치 있는 것, 즉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리와 보호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말일의 계시에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¹⁰ 교리와 성약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그러나 서약을 지켜 준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를 얻을 것임이라.”¹¹

성약이 힘을 갖는 한 가지 이유는 특히 신성한 성약이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능력을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능력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심중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약속을 하기 때문에 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부연하자면, 신성한 성약은 일반적인 계약이나 약속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성신)에 의해 인봉되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도록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사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드는 데 있으며 성약은 변화를 위한 참으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약은 성전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되며 특히 엔다우먼트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침례 성약이나 성찬식, 암수 등이 모두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어떻게 초점을 맞



추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엔다 우먼트를 받을 때 맷는 성약들은 우리에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와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또 한번의 경륜의 시대에 어떻게 속죄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약에 의해서 이뤄지며, 이 성약은 오직 의식을 통해서만 맺어지고, 이 의식은 신권의 열쇠를 통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거듭남은 복음의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오는 것입니다.”¹³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가 성전 사업이 갖는 영적인 힘을 이해하고 성약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올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 줍니다. 그런 다음 성약을 지키는 것은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이제 성전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경건은 계시를 받는 데 없어서는 안될 열쇠입니다. 약속된 계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집이 갖는 신성한 본질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고 성전을 떠나서는 그 아름다움과 품위와 엄숙함에 걸맞은 진실성을 유지함으로써 성전을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건의 일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큰 존경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실제 행동들은 우리가 느끼는 경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증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에 관해서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¹⁴ 우리는 성전 엔다 우먼트의 신성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



성

전의 핵심 기능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의식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





성

전 사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욱 효과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맷는 성약들은 우리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리는 또한 성전의 신성한 구역 안에서 품위 없거나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속한 말은 성전 밖이라 하더라도 대화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주님의 집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친 농담이나 큰 웃음도 우리가 느껴야 할 경건과 존경의 느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성

성전 축복을 받기를 몹시 열망하여 충분히 준비되기도 전에 추천서를 받으려 하는 회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성전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도록 준비시켜 줍니다.¹⁵ 우리의 예언자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감독들이 개인적인 행동이 조금 의문시되는 와드의 회원에게 추천서 발급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거절이 당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합당하지 않고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¹⁶

가먼트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가먼트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위대한 특권 가운데 하나가 가먼트를 입는 것입니다. 가먼트를 성전의 일부로, 주님의 집에서 맷는 성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합당하게 가먼트를 입는다면,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성전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먼트를 입는 문제에 대해 대관장단이 지시한 것을 잘 따라야 합니다.

“가먼트를 착용하는 것은 성전 성약을 맷은 사람들의 거룩한 특권이다. 가먼트는, … 올바르게 입을 경우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된다.

“회원들은 성전에서 교육 받은 유의 사항에 따라 주야로 가먼트를 입게 되어 있다. 회원들은 가먼트를 고친다거나, 일반적으로 용납되는 옷이라 할지라도 스타일을 달리해서 입을 목적으로 유의 사항에 어긋나게 가먼트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옷 속에 가먼트를 입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 경우, 가먼트를 벗어서는 안 된다.

“회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스스로 가먼트 착용에 관한 개인적인 의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성스러운 성약은 회원과 주님간에 맷어진 것이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¹⁷

적합한 복장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을 뒤로 하고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 줍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문제에 관해,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준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옷은 비싸지 않아도 좋다. 우리의 복장은 성찬식 혹은 적절하거나 품





위 있는 모임에 참석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¹⁸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 정숙한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형제들은 소매가 긴 흰 셔츠와 흰 바지를 입습니다. 자매들은 긴 소매에 바닥까지 닿는 흰 드레스나 흰 블라우스에 흰색의 긴 스커트를 입습니다. 성전에서 흰 옷을 입는 것은 순결과 죄로부터의 깨끗함을 상징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가 그렇기를 소망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흰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또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보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웨딩 드레스가 표준 성전 복장처럼 정숙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입는 모든 드레스는 희고 소매가 길며 디자인이나 옷감이 정숙하고 사치스러운 장식물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속이 비치는 얇은 천에는 안을 대야 한다. 여자들의 바지는 성전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성전 의식을 받을 때 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부 드레스는 뒤에 질질 끌리는 긴 옷자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¹⁹

인봉 의식

마지막으로, 특히 돌아가신 친척들에게 미치는 성전의 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나 자매 혹은 다른 친척이 세상을 떠나던 날 밤 울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거행되는 인봉 의식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줍니다. 인봉 의식들은 성약에 참되고 충실한 말일성도들에게 강력한 축복을 부여해 줍니다. 저는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1814~1901)의 다음과 같은 심오한 약속에서 언제나 힘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으며, 우리의 장래는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 자녀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얻는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얻게 될 것입니다. … 빛나간 자녀

들로 인해 애통하는 분들은 아들과 딸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련과 역경을 잘 견디어 내고 부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신권의 권세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처럼 승영과 영광의 길에서 여러분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얻게 될 때까지 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 산 위로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표시해놓은 길로 따라오지 않거나 여러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왕과 제사로서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후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²⁰

성약의 인봉의 끈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리와 성약들이 창세 이전에 주어졌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받기 위해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

주

1.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7쪽.
2. *History of the Church*, 4:426.
3. 누가복음 9:24.
4. 교리와 성약 128:5, 15; 또한 히브리서 11:40 참조.
5. 교리와 성약 138:32~34; 또한 베드로전서 4:6 참조.
6. 교리와 성약 132:7.
7. 교리와 성약 131:2.
8. 교리와 성약 128:9.
9. *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ected by John A. Widtsoe (1941), 416쪽.
10. 교리와 성약 93:20.
11. 교리와 성약 54:6; 또한 모로나이서 10:33 참조.
12. 신앙개조 3~5조 참조.
1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1.
14. 전도서 3:7.
15. 고린도전서 2:11~16 참조.
16. 고든 비 헹글리,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킴”, 성도의 빛, 1990년 7월호, 61쪽.
17. 대관장단 서한, 1996년 11월 5일.
18. *The Holy Temple* (1980), 73쪽.
19. *Bulletin*, 1992, number 1, page 2.
20. In *Millennial Star*, 1894년 1월 22일, 51~52; 또한 Boyd K. Packer, “Our Moral Environment,” *Ensign*, 1992년 5월호, 68 참조.



필멸의 삶을 시작케 한 선택

타락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 준 영광스러운 필연이었습니다.



제스 엘 크리스턴슨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저의 훌륭한 동반자가 자녀들을 출산할 때 보여 준 위대한 사랑과 용기에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출산에 따르는 고통과 아픔을 곧 잊고 우리 가정에 자녀가 생겨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워했습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3막극”¹에서의 제 2막을 여는 선택이었던,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로 했을 때, 과연 그러한 것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이 연극의 등장 인물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담, 이브 그리고 루시퍼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1막인 전세와 2막인 현세 사이에 펼쳐진 막간 촌극의 무대였습니다.

무대 배경

1막에는 천국 회의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루시퍼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며 아버지의 “영예”를 요구합니다.(모세서 4:1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요 선택된 자”였으며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모세서 4:2 참조) 우리는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구세주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며(요한계시록 12:7~9 참조), 루시퍼는 “그에게 머리를



돌린 자들과 함께 던지움을 받”았던 것입니다.²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막간 장면에서 입안자이자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해 지구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전세의 미가엘로서(교리와 성약 27:11 참조) “세상의 창조를 도운 … 영화롭고 기이한 분이었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 완전하고 능력 있는 내조자였습니다.”³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놓였는데, 아담은 “흙으로 … 지음을 받았”고, 이브는 그의 옆구리에서 창조되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모세서 3:7, 21~24 참조)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네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가르치고, 계명을 주었으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기 전에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그러나 내가 네게 금하였음을 잊지 말지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임이라” (모세서 3:17) 이와 같이 자유의지의 행사와 필멸의 상태가 될 가능성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선택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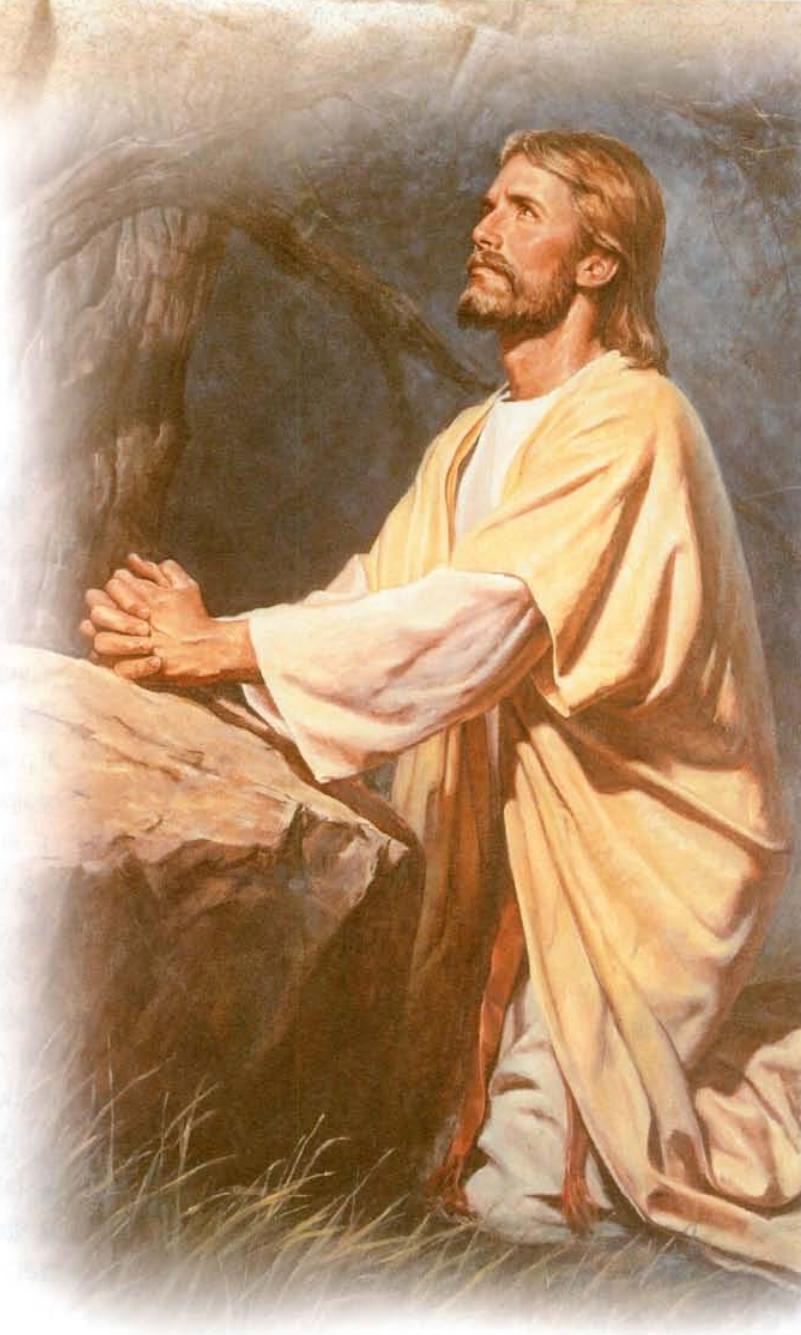
루시퍼도 또한 태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멸하려 하였고, … 모든 거짓의 아비가 되어”(모세서 4:3~4) 우리의 첫부모를 속이려고 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먼저 아담에게 말했으나 아담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시퍼는 “이브를 속이려”(모세서 4:6) 하였습니다. 그는 이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세서 4:7) 사람에게 과거의 기억에 대해 문제 삼는다면 종종 의심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루시퍼의 첫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루시퍼는 주님의 말씀에 정 반대되는 말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모세서 4:10; 또한 교리와 성약 29: 41~42 참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아 아십이니라.” (모세서 4:11) 루시퍼는 거짓을 섞은 부분적인 진리로 말했습니다. 이브가 열매를 먹는다면 참으로 그녀의 눈이 열릴 것이며 선 악을 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먹으면 즉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간교한 속임수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경험을 통해 선악을 배울 때에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앨마서 12:22~26; 교리와 성약 29:39 참조)

루시퍼의 제언을 듣고 난 이브는 금단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달콤해 보이며, 보기 좋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시퍼는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욕망을 일으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⁴ 그래서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모세서 4:12 참조) 아담은 아내와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모세서 4:18 참조)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와 같이 이 유혹에 직면하여,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기 위함”(니파이이서 2: 25)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선택에는,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따랐습니다.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루시퍼의 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힘을 갖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모세서 4:21)⁵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구세주께서는 루시퍼를 이겨 내실 것이며 우리 또한 그의 권세로 이겨 낼 것입니다. 이브에게는 주님께서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슬픔[산고나 고통을 의미함]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모세서 4:22)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녀는 어머니가 될 것이



며 “자녀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⁶ 아담을 위해서는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모세서 4:23~25 참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⁷ 그리하여 아담과 이브는 이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제2막인 필멸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나 약속도 없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벗은 것을 가리도록 “가죽 옷을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모세서 4:27) 이 옷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이고 신체적인 보호를 나타냅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쫓겨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의 하나님인 주님께 희생을 드려 예배하였으며, 그분의 이름에 복을 돌렸습니다.
(모세서 5: 4~5, 12 참조)

타락과 속죄

인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 사건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속죄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이해하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을 이해해야 합니다.”⁸ 말일성도인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먹기로 한 아담과 이브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훌륭한 일이었으며, 우리의 성장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1876~1972)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이해하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한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우리는 이곳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 열매를 먹었습

니다.”⁹

그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오는 결과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왜 사탄의 말은 이브에게는 그토록 유혹적이었지만 아담에게는 그렇지 않았는가?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는가?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은 난처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이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 설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첫번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변화되어, 필멸의 몸이 되었으며, 부모가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가족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에치 옥스 장로는, 타락은 “영생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¹⁰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기회를 축복 받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통해 다른 축복들도 왔습니다.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거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축복이 추가로 주어졌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은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니파이어서 2:27)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고서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01:78; 134:1 참조]¹¹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이 실험실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타락과 기쁨

아내와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선택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딸

들과 며느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 오는 소중하고 작은 영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저는 타락이 아니었더라면 출산과, 고통, 슬픔, 질병, 건강, 기쁨, 사랑, 죽음, 다시 말해 영원한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주의 위대하신 속죄의 회생이 아니었다면 죽음을 극복하거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가족과 함께 승영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친구, 속죄를 통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생명이요, 빛이며, 하늘에 살아 계신 아버지의 살아 계신 아들이십니다.

필멸의 삶을 시작케 한 그 선택에 대한 이해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1막에서 구세주를 따르기로 선택했던 우리가 제2막의 무대에서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제스 엘 크리스천스 장로는 유타 북부 지역에서 봉사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2001년 10월에 해임되었다.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The Play and the Plan*, 독신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본의 모임, 1995년 5월 7일, 2 참조.
2. 예언자 노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쪽.
3. 리차드 지 스코트,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74쪽.
4. 제임스 이 탈매지, “A Greeting to the Missionaries,” *Improvement Era*, 1913년 12월호, 173쪽.
5.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44쪽.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인문,”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7.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4쪽.
8. “변화 속의 불변,”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3쪽.
9. Conference Report, 1967년 4월호, 122쪽.
10.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3쪽.
11.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34쪽.

“교회의 힘”

고 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회개하여 충실하고 훌륭한 교회 회원이 된 한 청년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이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 저의 친구들이 이들은 세상적인 것에서 크게 부하지는 않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요하고도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우



리는 그분에게 보고드릴 책임이 있으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요한복음 14:6 참조),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이며, 참되며 기쁨과 화평과 병고침은 교회의 가르침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걷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9:18 참조)” (이번 호, 6~7쪽) ♥ 다음의 여러 이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회의 힘은 더욱 구세주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충실한 회원들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친구와 이웃에게 그리스도교인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면서, 복음대로 생활하는 회원들로 인해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

마리아 소나 피 안티케나

19 96년 5월 30일 오후 3시, 나는 친구 로르나와 함께 필리핀의 한 섬인 세부로 여행을 떠났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님이 다음날 저녁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을 하실 예정이었다. 우리는 사이드카가 달린 3륜 오토바이를 타고, 필리핀 일로일로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세부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모여 있을 항구로 갔다. 친구와 나는 여행 중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예언자를 보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비가 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태풍이 우리의 여행을 엉망으로 만들고 예언자를 보려는 기회를 망치게 하려는 것일까? “첫번째 시험이야.” 하고 로르나가 내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흐린 하늘에 관해 잊어버렸다. 다른 회원들의 들뜬 모습에 우리 마음도 들떴다. 이제 곧 주님의 예언자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 거의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 여행에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로르나와 나는 타고 있는 배에 씻을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몹시 실망했다. “두 번째 시험이야.” 하고 나는 생

드디어 헝클리 대관장 내외분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내외분과 함께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영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했다. 얼마 후에 우리는 더 나쁜 소식을 들었다. 배 안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짐을 훌에 쌓아 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다음날 배가 부두에 정박한 후, 힙클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실 장소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버스에 타기 위해 줄을 섰다. 마지막 버스가 완전히 꽉 찬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로르나는 “또다른 시험이야?” 하고 말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길을 재촉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사람들로 넘쳐 나고 있었다.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실망이 앞섰다. “아무래도 배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하고 로르나가 제안했다.

나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에게 결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예언자를 볼 수 없을 거야.” 그런 후 우리는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 커다란 홀 안은 몹시 덥고 답답하여 질식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상층부에서 두 자리를 찾아, 찌는 듯 한 더위 속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힙클리 대관장 내외분이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내외분과 함께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

았다. 그 순간 나의 근심과 좌절감, 심지어는 더운 느낌조차 사라져 버렸다. 온 회중이 일어나 다 함께 찬송기를 부르기 시작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6장)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까지 교회 잡지와 책을 통해서만 예언자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두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같은 영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변에 있던 남녀 모두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을 닦고 있었다.

힙클리 대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 분이 참으로 오늘날 주님의 예언자이시라는 것을 온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경전 구절이 떠올랐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바로 그 순간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언자에 대한 나의 간증이 영에 의해 강화되었다. 주님의 예언자를 보고 그 분이 드리는 간증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 참으로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훌륭한 기회였으며, 가장 값진 경험이었다.

마리아 소냐 피 안티케냐는 필리핀 일로일로

스테이크, 일로 시티 제 1와드 회원이다.

“그냥 형제라고 불러 주세요”

호세 바타예르 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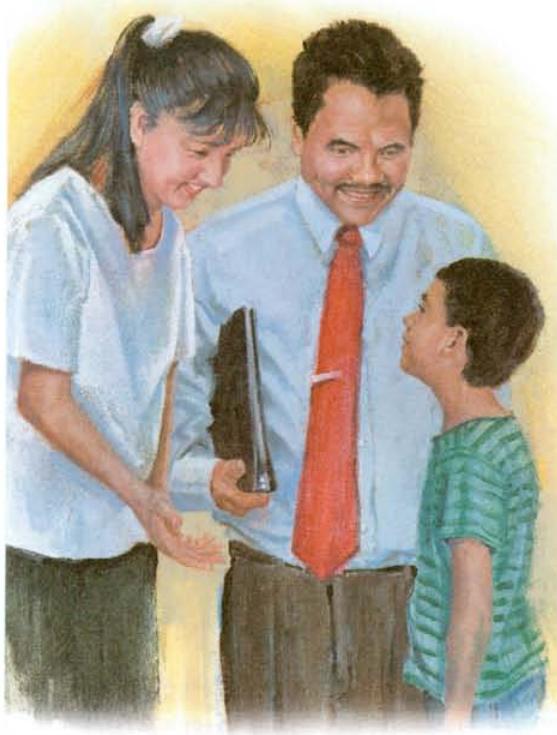
4 월의 아침 햇살이 크림색의 커다란 현대식 건물을 구석구석 아름답게 채색했다. 건물 주위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는데, 마치 학교처럼 보였다. 우리는 양탄자 청소용품 카트로그를 팔에 끼고 문으로 걸어들어갔다.

약혼녀인 에리카는 나를 도와 방문 판매를 함께 했다. 우리는 내가 일하는 회사를 위해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걸어다니느라 뒷굽이 닳아 버린 구두가 붉은 벽돌로 된 바닥 위로 딸깍거렸다. 홀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어떤 관습과 규칙이 적용되는지 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나는 어째서 이 교회에는 결혼식을 할 때 사용하는 붉은색 양탄자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다. 그러나 이 건물의 모든 것은 간결하면서도 우아해 보였다.

친절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몇 명이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에리카는 그들에게 이 건물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어린 소년이 대답했다. “로버트 바스퀘스요.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때 친절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몇 명이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에리카에게 눈짓을 하며 그들이
만일 우리를 개종시키려 하면, 다른 약속
이 있다고 하고 그녀의 집으로 피하자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부모님의 종교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
만 그렇다고 겸은 양도 아니었다. 나는 절
기에 따라 교회에 이따금 참석하는 어린
양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러나 설교와 성
경 공부, 도덕 강좌 등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속죄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계명과 의식에 대해서도 배웠다.
나는 또한 우리가 필멸의 존재로서 갖는 부인할 수 없는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죄 사함을 위한 현금이나 우상 숭배,
다른 일체의 미신이나 가르침에 반대한다

고 생각했었다. 나는 성인들의 중
재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경배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사랑과 겸손, 봉사, 남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용서가 주
는 위안 등을 믿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니던 교회의 신도들 가운데
데 덕이 있고, 의롭고 모범적인 신도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종교를 고려해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에리카의 손을 잡고 교실처럼 보
이는 방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나는 바
스퀘스 씨를 만났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신부님? 목사
님? 전도사님?” 하고 물었다.

“그냥 형제라고 불러 주세요.”라고 그
가 대답했다. 그는 다음날 있는 예배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그의 초대를 받아들
이는 내 자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에리카와 함께 주일학교에 참석
했다. 니파이, 모로나이, 힐라맨과 같은
이름을 듣게 되었다. 마치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이 외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카와 나는 듣는 내용들에 대해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
을 느꼈다.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했다. 그래서 나는 손을 들고 일
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의 뜻
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겸손의 모범을 되신다고 말했다. 교사

인 요르게 몬토야 형제는 내가 말한 것에
동의했다. 나는 놀랐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교회 회원들은 내가 분
명 이방인일텐데, 그러한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며 교사가 동의한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몰몬경을 받고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
나는 간증을 얻었고, 선교사와 토론한
후, 1996년 5월 3일에 침례를 받고 확
인을 받았다.

그 다음날 나는 마치 머리 위에 100
와트짜리 전구를 켜고 걸어 다니는 것 같
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낯선 사람들을 도
와 주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너무나 행
복했다.

그 다음달에 나는 에리카와 결혼했다.
9월 29일에 나는 그녀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일 년 후에 우리는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예전의 종교
생활에서 추구하던 그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전에 갖고 있던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안에서 기꺼이 받
아들여졌고 완전해졌다. 나의 개종은 마치
흐린 날의 빛에서 맑게 갠 날의 더 밝은
빛으로 옮아 간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노를 젓다가 누군가 모터에 시동을 건 것
과 같았다.



나는 다른 종교에도 의롭고,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들은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교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굉장히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란 등불이나 가로등, 혹은 촛불 등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순수한 진리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으며, 순수한 진리는 세상 곳곳에 있는 모든 선한 사람들의 참된 믿음을 포용하며 온전하게 해준다.

나는 이제 밀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이 충만한 진리를 가진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그분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4월의 아침에 나는 양탄자 세탁용품을 팔지는 못했다. 사실 나는 교회의 어느 회원에게도 제품을 팔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날 아침에 더 많은 것을, 천 배도 더 되는 많은 것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었다.

호세 바타예르 살라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르미타 스테이크, 에르미타 와드 회원이다.

사랑의 선물

클라우디아 웨이트 리치즈

콩 고 민주 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몇 달 동안 머물던 때에,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방문 교육을 와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불어를 배울 수 있게 하려고 그녀가 오랫동안 방문할 기회를 봐 왔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당시 지부에는 우리 가족만이 북 아메리카 출신의 가족이었다. 일부 자매들은 불어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은 부족어인 링갈라어를 사용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자신이 지부 자매들과 너무 다르다고 느꼈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두 이들을 둔 미망인이었다. 그녀는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다. 그녀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주님의 영을 동반하고 왔다.

인사를 나눈 후, 그녀는 내게 영어 성경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녀는 내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불어 성경으로 읽고 난 후 영어 성경으로 읽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리”

나는 그 계란을 받기가 죄스러워 선물을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 계란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녀가 선택한 구절을 읽으며 미소가 떠올랐다. 상호부조회 회장은 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이해했던 것이다.

돌아가려고 일어서며, 이 상냥한 자매님은 계란 10개를 선물로 주었다. 나는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희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계란을 받기가 죄스러워 선물을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그 계란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 계란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녀가 가져다준 사랑을 함께 느꼈다. 그 사랑은 온 집안을 채웠고 모든 것을 더 밝아 보이게 했다. 그녀와 함께 기도한 후, 아프리카 천으로 몸을 두른 조그마하고 우아한 그녀의 자태가 마당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꼈다.

클라우디아 웨이트 리치즈는 말레이시아 콜라룸푸르 지방부, 콜라룸푸르 지부 회원이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로 성임된 지 2년이 지난 1837년에, 히버 시 김볼 장로가 커틀랜드 성전에 앉아 있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그가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기 원하신다고 속삭여 주었다. 그는 북 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으로 보내지는 최초의 선교

사가 되었다. 김볼 장로는 이렇 게 말했다. “그러한 선교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 감당하기 몹시 힘든 일이 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지워진 짐에 깔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름을 받아들여 영국으로 떠났다. 리버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열의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해 한 순간, 나는 그분이 전능하신 권세로 나를 도와 주실 것이며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

을 하게 되었다.” (*History of the Church*, 2:489~490 참조)

김볼 장로의 선교 사업은 그 후로 수년 동안 영국에서 대성공을 거두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교회에 큰 보탬이 되었다.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부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겸손한 기도와 근면한 준비와 충실히 봉사를 통해 우리는 성스러운 부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항해”,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56, 58~59쪽) □

7월과 8월에 있었던 일들

다음은 7월과 8월에 있었던 사건들로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다.

1835년 7월 3일: 마이클 에이치 챈들러가 이집트 미이라 몇 구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전시하기 위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왔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두루마리를 번역했으며, 그가 번역했던 내용은 현재 값진 진주에 포함되어 있는 아브라함서가 되었다.

1837년 7월 30일: 영국에서의 최초 개종자인 아홉 명이 영국 프레스턴에서 침

례를 받았다.

1842년 8월 6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이 로키 산맥에 정착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1847년 7월 22~24일: 첫번째 개척자 무리가 솔트레이크 계곡까지의 1,000 마일(1600킬로미터) 여행을 마쳤다.

1877년 8월 29일: 브리감 영 대관장이 향년 76세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는 근 30년간 대관장으로 봉사했다.

그림: 게리 앤 캠, 리버풀에서 해안으로 가는 히버 시 김볼; 아브라함서에 있는 그림의 일부, 1번; 그림: 마이클 티 임, 전도하는 요셉 스미스; 사진 촬영: 웨든 시 앤더슨, 포장마차의 바퀴; 그림: 켄 코르벳, 미대륙의 모세인 브리감 영

리아호나

2002년 8월호

활용하기

토론 제언

■ “이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것”, 2쪽: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감독이 한 젊은이를 위해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열어 줌으로써 활동 회원이 되게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와드나 지부에 더욱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재능을 가진 회원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의 부름을 통해 이 사람이 참여하도록 이끌어 줄 방법은 없는가?

■ “지식을 얻고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얻음”, 12쪽: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우리에게 “보는 것을 통해 특별히 성신이 속삭여 주는 것을 느낌으로써 배우는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권고한다. 최근에 가졌던 영적인 감동을 기록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느낌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겠는가?

■ “갈증”, 친14쪽: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진지함과 신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 가르침 48
- 가정 복음 교육 7
- 가정의 밤 48
- 가족 역사 친8, 친12, 친14
- 개종 8, 42
- 결손 친4
- 교회사 47
- 구약성서 친10
- 기도 26, 친14
- 기적 2, 친10, 14
- 모범 22
- 방문 교육 25
- 봉사 2, 25
- 부모 26
- 사랑 20, 25, 26, 42
- 선교 사업 8, 20
- 성신 12
- 성약 30
- 성전과 성전 사업 30, 친2, 친12
- 속죄 26, 38
- 신앙 26, 친14
- 신약성서 이야기 친4, 친7
- 어린이 26, 친7
- 예수 그리스도 22, 25, 38, 친4, 친7
- 예언자 42
- 우정 8, 22
- 의식 30
- 일지 친8, 친12
- 자유의지 38
- 지도력 2, 47, 48
- 지식 12
- 초등회 친12
- 타락 38
- 활동 촉진 2
- 희생 42

실력 테스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각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지역을 맞춰 본다.

- | | |
|--------------------|--------------------|
| 1.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 | a. 캐나다 |
| 2.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b. 영국 |
| 3. 엘 톰 페리 장로 | c. 브라질 |
| 4.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d. 영국 |
| 5.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e. 북쪽에 있는 여러 주(미국) |
| 제프리 알 헐런드 장로 | f. 독일, 호주, 스위스 |
| 6. 조셉 비 워스린 장로 | g. 우르과이 |
| 7.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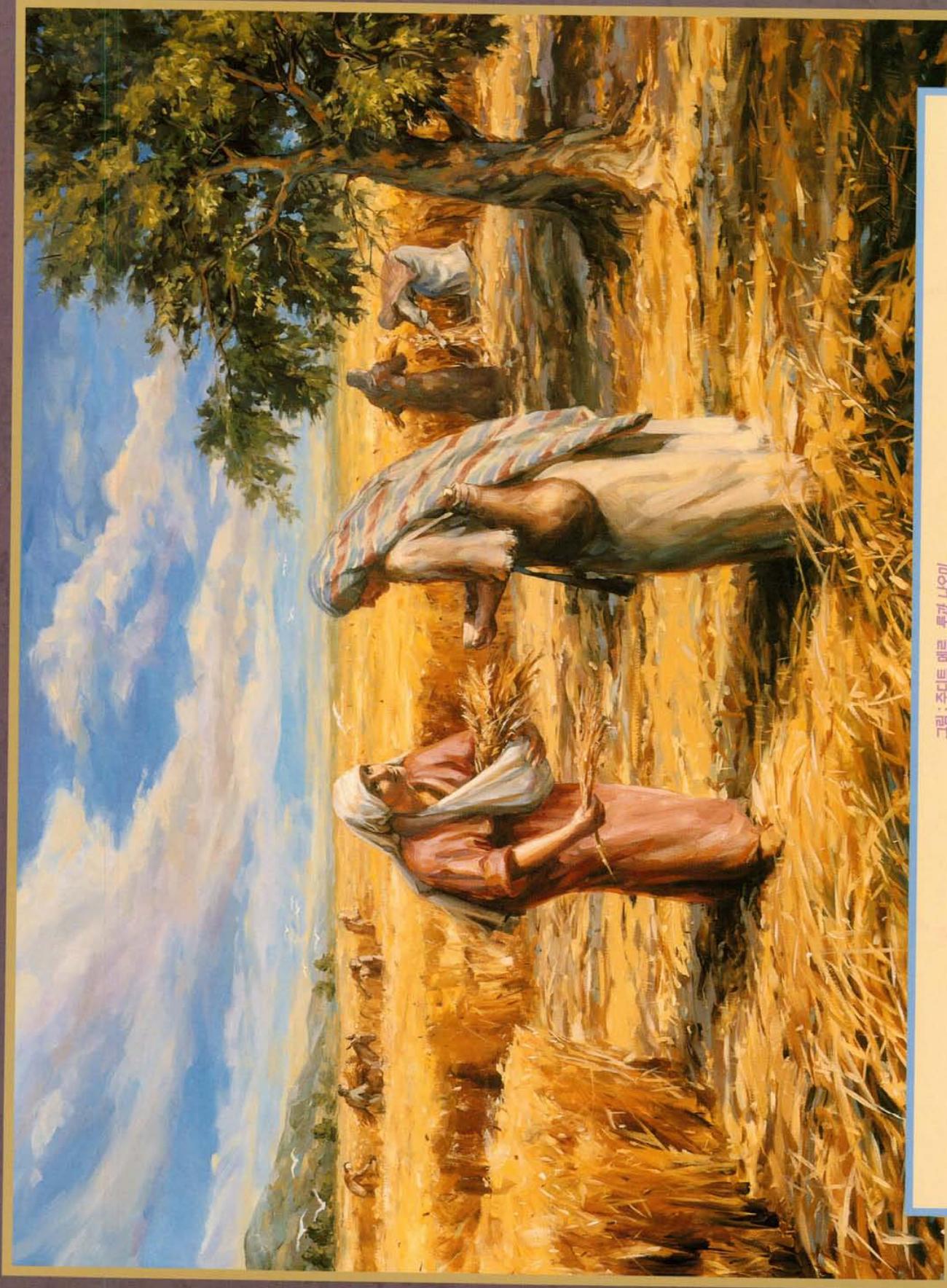


그림: 주디트 예르, 톰과 나오미

“모임 여인 유플이 나와 함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줄겠느니라” 말 주인인 보아스가 풋에게 이삭에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온 내게 온전한 삼주식기를 원하노라(룻기 2:2, 12)



제가 지닌 모든 설득력을 다하여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추천서를 받고, 그것을 귀중한 재산으로
여기며, 주님의 집에 가 그 안에
마련되어 있는 영과 축복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성전
사업의 교리”, 30쪽 참조)

성전 사진들 © INTELLECTUAL RESERVE, INC.
복사 업급